

5 분 자 유 발 언

- 가뭄에 강한 고성농업, 물관리 체계부터 바뀌야 합니다 -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먼저, 폭염과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작물을 바라보며
힘겨운 여름을 보내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은
올여름 심각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바닥을 파고 양수기를 동원하고
급수차를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가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물을 확보하는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해야 하기에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8개의 저수지와
622공의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규모지만,
저수지는 수심이 얕아 저수량이 부족하고
관정 역시 지하수 취수량에 한계가 있어
가뭄 때마다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시설관리를 넘어,
고성 전역의 용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동호를 고성 농업용수의
핵심 광역 수원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수혜면적 약 1,400ha(헥타르) 규모로,

고성읍 · 마암면 · 동해면 등
6개 읍 · 면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24년째 이어져 온 이 숙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됩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준공 후 실제 농경지까지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와 지선 용수로 등
후속 공급 체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비가 올 때 물을 잡아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상당한 양의 물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을 때 저장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천 저류시설 조성을 확충하고
기존 저수지와 연계한다면,

비가 올 때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는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수로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도
단계적으로 바뀌야 합니다.

개수로는 이동 과정에서 증발과 누수 등
손실이 커 말단 농경지까지
물이 제대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수로 손실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관수로로 전환하여,

개수로와 관수로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용수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확보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 저수지와 관정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수지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취수시설 정비 또는 확장으로
실질적인 저수 능력을 높이고,

관정 역시 무분별한 개발 대신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가뭄은 하늘의 일이지만,
관리는 행정의 몫입니다.

가뭄에 무너지는 농업이 될지,
가뭄에도 버티는 농업이 될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마동호와 저수지,
하천, 저류지, 관정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뭄에 흔들리는 농업이 아니라,
가뭄에도 든든히 버텨내는
고성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